

# 레슬리 알렌 박사, 애가, 세션 6,

## 애가 3: 1-16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6부 애가 3:1-16입니다.

이제 애가 3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1절부터 16절까지만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 전체를 훑어보고 각 부분의 복잡성을 조사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1절부터 16절까지를 멘토의 간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책감과 관련된 기도 애도, 즉 자신이 이전에 기도했던 개인적인 애도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 그는 방금 반복한 애도와 그가 배운 교훈을 개인적으로 반성하며 계속합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교훈을 전하며 특히 희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25~49년에 그는 우리가 설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나쁜 경험과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것에 대한 기대를 통합하는 일반적인 신학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는 40~41장에서 회중이 참여해야 할 참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42~47장에서 그는 그들의 제안에 대한 모범적인 기도, 즉 그들이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종류의 기도를 제공합니다. 끝으로 나아가면서 48~51년에 그는 고통받고 있는 회중에게 공감하는 개인적인 감정적 반응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52~66장에서 그는 또 다른 간증을 합니다. 이제는 불만에 기초한 간증입니다. 또 다른 개인의 기도 탄식입니다. 그러나 불만에 기초하지만 희망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장의 전체 내용이며, 이 특정 단계에서는 1절부터 16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가 3에 접근하면서 이에 대해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비극을 넘어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희망을 전공하는 중앙 부분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대중적인 생각에 따르면 이 부분은 책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치 중 유일한 부분이며, 하나님에 대한 한 인용문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가』는 3장으로 고개를 끄덕이지만 3장 중반의 작은 부분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제3장에 대한 현대 학문적 사고로 눈을 돌릴 때, 학자들은 애가와 그 안에 있는 제3장의 역할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싶어하는데, 이는 옳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특권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는 애가의 나머지 부분보다 3장을 더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학자들은 3장이 다른 장들과 다르기 때문에 책의 나머지 부분보다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책의 원래 부분이 아니라고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때로는 3장에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갈등과 고통에 초점을 맞춘 마지막 애도에 의해 그것은 상쇄됩니다. 그러므로 3장에는 우여곡절이 있는데, 우여곡절을 특권으로 여기거나 불리한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3장에 관여하거나 책의 나머지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4장은 고통, 큰 시간, 다시 고통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가 에는 슬픔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슬픔의 과정을 끝내기 전에 계속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장은 결코 이 책의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에서 나는 어떤 입장에 서야 할까요? 나는 3장이 그 자체로 특권을 부여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장에는 자기 특권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야? 음, 아크로스틱은 특별한 형태를 취합니다. 제가 언급한 아크로스틱 형태를 기억하시나요? 이 책은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 등장하며, 알레프, 바스, 기멜, 달레트 등 알파벳의 모든 글자를 거쳐 22개의 알파벳 글자를 통틀어 나옵니다. 글쎄요, 이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검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2절이 아닌 66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은 1장이나 2장보다 3배 더 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살펴보면 1장이나 2장보다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검증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두행체 형식을 인정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 22연, 3줄 연의 관점에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1장에는 4행 연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2장에는 4행 연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으로 보면 1장에는 67행이 있고, 2장에는 67행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음체의 차이점은 1장과 2장에서 구절이 계산된 방식처럼 연의 시작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각 연은 해당 첫 문자를 반복하므로 처음 세 연의 줄에서는 A, A, A, 두 번째 연의 줄에서는 B, B, B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강화된 두문자어가 있고, 새로운 검증은 그것을 정의하고 싶어합니다.

아크로스틱 형태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3장은 이 아크로스틱의 강화로 인해 매우 특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단지 시를 구성하는 흥미로운 방법일까요? 아니,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전체성을 의미한다고 이전에 촉구했습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다시 4장에서는 고통의 총체성과 항목별 총체성이 언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3장은 더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재난과 고난을 포용하지만, 이를 넘어 새롭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체성을 확대합니다. 희망적으로 슬픔은 끝날 수 있으며, 슬픔을 넘어설 수 있는 길로서 희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3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온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성 연사는 없으며, 사실 책의 나머지 부분에도 없습니다.

그녀는 2장과 22절에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소수의 견해, 물론 소수의 견해를 따르며, 1장과 2장의 주요 연설자가 3장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그를 멘토, 사람들의 고통을 헤쳐나가는 사람, 그리고 여기 이 장에서 그들에게 고통 너머의 가능성, 곧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신학적 가능성을 바라보도록 용기를 주는 분과 동일시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주요 연설자, 여기 있는 멘토, 내가 멘토라고 밝힌 사람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장 49절부터 51절까지에서 그는 2장의 내용을 연상시키는 매우 분명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349, 하늘에서 주님께서 감찰하실 때까지 내 눈은 쉬지 않고 쉬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내 눈은 우리 도시에 있는 모든 젊은 여성들의 운명에 대해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고통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화자가 2:11에서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하게 들립니다.

내 백성이 패망하고 젖먹이들이 성읍 거리에서 기절하므로 내 눈이 울며 내 배가 아프고 내 창자가 땅에 쏟아졌느니라. 그리고 내 생각에 그 유사성은 처음 두 장의 주요 연설자, 사실 내 생각으로는 멘토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개념에 가능성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3장 1절과 새 RSV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환난을 본 자니 우리는 거기 거하리라. 새로운 국제 버전을 보면 거기에 다른 렌더링이 있으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고난을 본 사람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범위에 대해 히브리어 사전을 살펴보면, 남성의 관점에서는 남성이지만 사람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간이든. 단순한 남자가 아닌 사람.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데 대한 언어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New RSV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이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포괄적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NIV는 여기에 남성 참조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을 본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아주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고통을 겪은 한 여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온이 그 극적인 전례에 참여하여 시온을 대표하고 그녀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여성 롤모델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남성 롤모델이 생겼습니다.

그 멘토는 1~16절의 첫 구절에서 잠시 자신을 조명하고, 자신이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회상하면서 개인적인 간증, 자신의 탄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시온이 기도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온의 남성인 멘토가 자신의 기도, 더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기도에 대한 보고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 기도의 탄식이었다면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멘토가 제공하는 보고서이므로 하나님을 3인칭으로 언급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개별 애도에는 3인칭 번역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다른 어떤 주석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은 우리의 애도 연구, 특히 애가 3에서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은 심리학에서 매우 많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인 칼 융(Carl Jung)에 의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칼 융은 매우 오래된 전통에 의존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아주 좋은 의사, 아주 영리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죽은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었고 그 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들을 화나게 했고, 신들은 삶과 죽음이 우리의 특권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히 우리의 특권을 빼앗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그 의사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제 카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료사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매우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치료자는 환자의 고통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부담스러워 치료가 끝날 때쯤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는 차례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걱정입니다. 지난 몇 년간 목회자로 일하면서 나는 환자들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압도당하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떠났고, 다른 환자의 병실로 가서 다시 그들의 말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쉬어야 해요. 아마도 목회 사무실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타자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보고를 하고 다른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지워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차례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 애가 3장, 49장부터 51장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자 자신, 하나님 아래서 치료자가 되려는 자도 차례로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회적 재앙에 차례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2장 11절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의 멸망으로 인해 내 눈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다가 바다 같으니 내가 너를 무엇에 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두 구절, 즉 2, 3절에도 치유자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고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 백성에 대해 연민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a Jung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또 다른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즉,

상처받은 사람도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치유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의 시작 부분과 3장 끝 부분의 증언에서 멘토가 도시의 파괴와는 별개로 지난 날 자신의 상처를 언급하는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가 겪은 나쁜 장면이 있었고 많은 극복이 필요했고 그는 그들에게 말하고 회중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돕기 위해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필요합니다. 12단계에 관한 그들의 훌륭한 작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그토록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두운 과거는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소유물이며, 다른 사람들의 삶과 행복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 이전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 안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은 낭비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처한 상황에 있었고 당신은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 학습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밀감,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애도를 시작과 끝 부분에 갖고 있으며, 그 애도의 가치는 그분 자신의 고통에 대한 증언입니다. 나 거기 가봤 어.

나 거기 가봤 어.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과거 시제를 통해 끝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RSV에는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그는 뭔가를 했지만 실제로는 2절에서 그가 나를 몰고 어둠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과거 경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논평에서 나는 슬픔의 전례인 애도에 관해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3장에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주제로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시에서 상처받은 치유자는 고통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과 그 길에 대한 경험을 제시합니다. 처음과 끝에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사역하고 자신을 실물교훈으로 제시합니다. 동료 고통자로서 그는 회중에게 그와 그들 모두가 달성하기를 갈망하는 새로운 온전함을 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상처받은 독자들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상처의 흉터는 여전히 아플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고통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 간증에는 1절부터 16절까지 다양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선, 어떤 애도는 은유와 매우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고통을 일반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애가의 시편에서는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을 수 없으며, 누구도 나에게 폐렴이 심해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은유적 언어, 그림 언어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은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CS Lewis는 은유에 관한 에세이를 썼고 은유는 상상의 세계에 속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은유에 포함된 상상력은 우리가 은유 뒤에 숨겨진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진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의 반대인 진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넌센스의 반대인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이성은 진리의 기관이다. 상상은 의미의 조직이다. 시편 애가뿐만 아니라 시편의 은유는 타당한 의미와 현실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유를 통해 시편 기자의 의도는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은유를 읽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래, 그게 바로 그런 거야'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볼 수 있어요. 시편의 은유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기도 애도를 보고하는 이 간증에서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사진, 상상 속의 스냅샷을 보게 됩니다.

은유에 관해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이 특정한 부분에서 은유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일반적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증의 어조가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난을 보는 평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은 잔인하다. 신은 독재자이다. 하나님은 깡패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 음, 그것은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아래서 고난을 본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노가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반응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설명할 수 없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편 102편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맥에서 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을 이 책에 확고하게 속한 것으로 여긴다면, 여기서는 1장과 2장 뒤에 나옵니다. 1장은 시온의 죄를 강조했습니다. 2장은 더 나아가 그 죄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은 2장에서 이어지며 이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NRSV가 옳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아래서 번역되었지만 각주에는 문자 그대로 그의 것이며 히브리어로는 그의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시온의 범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에 기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증 속에 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시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예언하신 예언적 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재난의 신탁에 대한 부정적인 개입입니다. 그러면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 애도에 들어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고백하는 시편의 애도와 시편의 감사에서 하나님의 부정적인 개입을 언급합니다. 시편 32편.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셨나이다.

시편 38편 1절과 2절.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시편 39편 10절. 당신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손에 눌러 지쳤습니다. 시편 51편 8절.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은 시편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다른 시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편 기자 개인과 그것을 말하는 시편 기자를 형벌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많은 반향이 있어서 시편 애가의 특정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와 여기 시편 기자로서 말씀하고 있는 멘토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련의 상상적인 방식, 은유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인 막대기의 타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의 타격과 같습니다.

2절은 어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으로 몰아가시는데, 그것은 항상 강력하고 불길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질병, 심지어는 골절, 내 뼈를 꺾는 질병에 대해 말합니다. 5절은 다른 비유로 포위 공격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포위했고, 그는 포위하여 괴로움과 환난으로 나를 에워쌌습니다.

6절은 나를 옛날 죽은 자처럼 흑암에 앉히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절에서처럼 어둠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의 죽음이 아닙니다. 죽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삶의 질이 낮은 것입니다. 많은 시편에서는 죽음을 삶의 질이 낮다고 은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죽은 자란 다시 살 희망이 전혀 없이 오래전에 죽은 자입니다. 7절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그는 내가 도망칠 수 없도록 나를 담으로 가두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나에게 무거운 사슬을 묶어서 내가 움직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갇혀 있고 감금되어 있어 움직일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주제이며, 우리 영어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히브리어로 자주 나옵니다. 환난이나 환란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협소함, 좁은 곳에 있는 것, 갇힌 것, 골방에 갇힌 것, 환난은 협착하여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넓은 곳, 즉 자유의 장소로 인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8편은 시편 18편과 19절과 같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반대인데, 넓은 곳으로 끌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과 5절에는 이에 대한 양면이 나옵니다.

자라지 아니하고 같은 뿌리에서 났으니, 내가 환난 중에서, 내가 좁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갇혀 있고 감춰져 있다는 느낌이 있고, 마침내 넓은 곳이 자유롭게,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시편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큰 대조입니다. 그런 다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절은 은유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실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그분은 내 기도를 막으십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또 다른 종류의 간힘인 길을 막는 것은 그가 다듬은 돌로 내 길을 막으니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길을 비뚤어지게 만들었고, 곧장 나아갈 길은 없어요. 삶은 계속되는 직선 여행이 아닌, 가능한 길을 찾기 위해 비틀고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절: 시편에서 자주 야생 동물의 예를 찾을 수 있듯이 시편에서도 인간의 적들은 종종 야생 동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야생동물과 같습니다.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꿈이고, 숨어 있는 사자이다. 그 사람은 나를 길에서 떼어 놓았고, 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경우 모두 일종의 준비가 있습니다. 이 나쁜 일에 대한 준비와 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숨어 기다리고, 사자는 숨어 있고, 그다음에는 들이닥쳐 찢기고 찢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궁수는 활을 당겨 조심스럽게 조준한 다음 화살이 앞으로 나아가서 그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는 나의 활력소, 말 그대로 신장에 그의 화살통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다가 14세가 되자 그는 이 모든 일의 결과로 2차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나는 내 백성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여기서 개인의 한탄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의 주변에는 그를 조롱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의 동족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의 조롱 노래의 대상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것도 사실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괴로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나를 쑥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쑥은 실제로 쑥(Artemisia)인데, 이는 아름다운 꽃과 관목의 무리입니다. 그러나 잎은 매우 쓰므로 쑥잎을 우적우적 먹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에 있는 벌레를 치료하는 약초라 해서 영어로 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벌레를 처리하기 위한 벌레용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인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그것은 단지 쓴 맛이어서 전혀 먹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는 내 이를 자갈 위에서 갈게 했습니다. 그는 나를 땅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나를 그대로 먼지를 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잣더미 속에 움츠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유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생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은유의 다양한 축적. 그들은 극적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엔 회중이 모든 말을 다 들어줄 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이것은 은유의 축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멘토가 회중이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가에 대한 주석을 준비할 때, 나는 고통에 관한 책, 기술서적, 자서전, 서적, 수필집 등을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읽은 한 에세이는 아들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은 목사님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인생이 가장 아프고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히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저는 그것이 3장의 첫 16절의 의도를 훌륭하게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그 자신의 고난과 고난에 대한 그 자신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자신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이해로 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학적 현상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원수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도달해야 할 출발점이다.

그들의 기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 상황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한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고난을 받은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 그는 그들의 멘토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섭리적인 것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에 대한 이전의 해석을 옳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3장의 목적은 멘토가 40~47절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촉구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44절에 따라 그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 간증은 확실히 분명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멘토 자신의 죄를 전제로 하는 탄식의 기도이며, 하나님의 부정적인 개입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이 그의 출발점이지만 결코 그가 끝내려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방금 말한 것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로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6부 애가 3:1-16입니다.